

特許廳 專門職 確保方案 요구

國政감사 商工委, 이직 對策도

제147회 정기국회 特許廳 國政감사에서 의원들은 特許廳 전문직 확보방안과 이직에 대한 대책 등을 따졌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특허청 자체승진과 상공부 등 외부로부터 전입하면서 승진하는 비율, 심사·심판사무에 5년 이상 근무한 特許廳 職員의 변리사자격 부여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의원들은 特許廳 독립청사의 수도권 건립이유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며, 特許廳이 관장하고 있는 항고심을 사법부의 관할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여부와 심사적체 해소 대책과 WIPO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약 채택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朴弘植 特許廳長은 그동안 特許廳 職員이 타직 공무원보다 이직율이 1~2% 높았으나 최근 인기가 상승하여 이직율이 감소하고 있고, 대학출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앞으로 이직현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심사·심판수당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관 등의 변리사 자격여부는 特許廳에의 우수인력 유치, 전문지식 경험의

활용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特許廳 청사의 수도권 위치에 대해 민원인 7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당연히 수도권에 위치해야 하며, 항고심의 관할문제에 대해 항고심판소의 방대한 기술자료의 필요성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우선 긴요하며, 심판은 기술내용과 아울러 산업정책적 차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중한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26회 辨試 14名 合格 金秀眞·李正順 공동秀席

特許廳은 지난 10월20일 제26회 변리사 시험 2차(최

중)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총 2백46명이 시험을 치른 이번 2차 시험의 최고 득점자는 金秀眞(경북대 화학과卒·26세)씨와 李正順(이대 약학과卒·26세)씨로 각각 66.3점으로 공동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를 전공별로 보면 이공 계통이 14명 중 10명 합격했고, 인문 계통이 4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金宰萬(서울대 미생물학과卒·23세)씨이고 최연장자는 孫英太(고려대 행정학과卒·41세)씨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모두 1백43명이 된다.

제26회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金宰萬 ▲金秀眞 ▲趙在衡 ▲文英實 ▲崔鉉碩 ▲金泰俊 ▲金允珉 ▲朴海善 ▲李正順 ▲吳承建 ▲魏惠淑 ▲孫英太 ▲朴英雨 ▲金鍾和 <♣>

特許法 등 改正法律案

政府案 확정

特許法 등 改正法律案이 國務會議을 통과, 政府案으로 확정되어 이번 定期國會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15일 特許廳에 따르면, 이들 工業所有權관련법 改正案은 법제처에서 審議중에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用語와 자순 등은 대폭 수정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本誌 12月号에 게재됨.>